

故 啓南 곽상수 명예교수

(1923.4.24 ~ 2013.11.17)

탄생 100주년 및 10주기 기념예식



집	례		곽 호 철 목사
말	씀		이 계 준 목사
회	고		김 명 엽 교수
오	르	간	신 동 일 교수
연	합	성 가 대	전·현 대학교회 성가대, 음대 동문
			서 은 주 교수
특	별	찬 양	교회음악과 합창단
			김 보 미 교수

일 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최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후 원 | 연세대학교 교목실, 연세대학교교회

故 광상수 명예교수 탄생 100주년 및 10주기 기념예식 순서

집 레 : 광 호 철 목사 (연세대학교교회 담임목사)

오 르 간 : 신 동 일 교수 (교회음악과 교수)

성 가 대 : 전·현 대학교교회 성가대, 음대동문
(지휘 : 서은주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전 주 . . . Tierce en taille de la messe . . . 오 르 가 니 스투
pour les paroisses (F. Couperin)

Sonatina, Cantata BWV 106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주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 (J.S. Bach)

입 레 송 주님께만 영광 (T.A.Walmisley) 성 가 대

예 식 사 집 레 자

찬 송 . .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 다 같 이

1절 : 다같이 2절 : 전반-여성, 후반-다같이
3절 : 전반-남성, 후반-다같이 / 간주 후 4절 : 다같이

김정준 (1914-1981)

광상수 (1923-2013)

하늘에 찬영광의 주하느님 온 땅에 충만 한 구원혜의 주하느님
하늘에 빛을 올리고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언제나 의심을 없애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리라. 성찬을 부리고 영광을 성생사기령명랑구원원의
하느님 찬찬능리와 영광의 자광해랑과 성생사기령명랑구원원의 하느님
우-리예배를반아주시옵소서 아멘.

인 사 말 씀 가 족 대 표

찬 송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다 같 이

1절, 2절 : 성가대만
3절 : 다같이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 간주 후 4절 : 다같이

C. Wesley 1744

HANOVER
W. Croft 1708

참 주 저 다 놀 능 보 경 략 력 좌 배 도 으 위 하 다 로 에 자. 주 늘 앞 전 크 보 으 능 신 호 신 의 이 하 주 왕 름. 고, 께, 께, 천 늘 다 영 하 우 함 광 만 리 께 과 국 결 나 권 에 에 와 능, 다 함 영 지

전 께 광 해 파 께 둘 와 - 하 시 리 존 라. 니, 자. 귀. 주 그 저 지 예 보 천 천 수 좌 군 사 온 앞 천 와 천 에 사 함 다 큰 다 주 스 무 찬 께 리 리 양 돌 시 모 하 리 니, 여, 며, 고,

그 구 그 그 높 속 어 영 으 하 리 원 신 신 신 한 이 주 양 사 름, 를, 께, 랑, 참 찬 다 다 영 양 경 감 화 하 배 사 룩 리 한 하 다. 라. 다. 라. 아 멘.

축 도 집 레 자

아 멘 송 성 가 대

후 주 Prelude BWV 541 (J. S. Bach) . . . 오르가니스트

연합성가대

sop. / 광경신 김미현 김수경 김영지 김윤정 문은주 임희숙 조숙희 한은영 홍윤희
alto / 김성희 김연선 김영신 박광숙 신채우 이숙경 이순옥 이 영 장정권 정경미
정지아 조경자 조숙영 조윤정 황승림
ten. / 권우경 김인규 김충수 류충기 박상훈 장용훈 허진
bass / 감우균 김명민 김주영 박종준 석성환 원학연 주진오 한준희

오늘의 예배음악해설

오늘 음악예배에서 찬양되는 음악은 곽상수 교수가 작곡한 찬송, 합창곡, 그리고 1992년 『예배음악모음』 CD에 수록된 영국 앤섬곡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CD 책자에 소개된 곽상수교수님의 예배음악에 관한 철학과 오늘 음악의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예배음악모음』을 준비하면서 음악지도자 곽상수 1992.3

연세대학교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 부활주일에 『예배음악모음』을 CD로 출판하게 되었다. ‘예배와 예배음악’의 올바른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우리 연세대학교교회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예배의식의 질서와 규율 (고전 14:26), 칼빈의 예배이상 이던 단순성과 통일성, 경건함과 정중함을 간직하며, 개인의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국교회의 한 모범이 되고자 한다. ‘예배음악’ 또한 이에 어울리게 정성으로 준비한 최선 최미의 것으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음악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예배 갱신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한편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심미안,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음악의 소중한 유산과 전통을 성실하게 이해, 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수록된 음악은 이와 같은 대학교회의 ‘예배음악’ 가운데서 선곡한 것이다.

‘오르간’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된 예배 인도를 위한 교회 악기이며, (1)전주, 간주, 후주 등 독주 주악 순서와 (2)회중 찬송 인도 (3)성가대 합창, 독창의 반주를 담당한다. 오르간 주자는 통달한 기술과 더불어 깊은 신앙적 감격으로 이 직책을 담당해야 한다. ‘성가대의 찬양’은 회중을 향해서가 아니라 회중을 대신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가대의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적 마음가짐 즉 Piety(경건)와 Adoration(흠송)의 정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 최미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정성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개신교 예배음악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의 하나인 영국의 Anthem(성가대 찬양곡)은 이와 같은 근본 정서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가사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는 신앙적이며 예술적인 예배음악이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예배음악이 사람 중심의, 사람을 향한 ‘은혜받은 간증’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영국 교회의 이와 같은 높은 경지를 지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영국 앤섬(anthem)

1. 주님께만 영광 / Not Unto Us, O Lord Psalm 115

(T. A. Walmisley 1814 - 1856, 곽상수편역)

윌미즈리는 영국 케임브릿지 트리니티대학과 세인트 존스대학의 음악교수이고 오르가니스트 작곡가였고, 특히 그의 앤섬들로 유명하다.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요 주님께만 영광 영광
주님 사랑, 주님 자비, 그 사랑 인하여 또 그 진실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2.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 Like as the hart desireth the waterbrooks 시편 42편

(Herbert Howells 1892-1983, 곽동순번역)

하월즈는 20세기 영국 작곡가 중에서도 가장 영국적인, 성악적인, 예술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편42편』은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작곡되었는데, 진지한 작품과 그 깊은 예술성으로 높이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 앤섬 중 하나이다. 시편 42편의 이 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 방황하면서 “언제 주님 앞에 나가 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괴로움과 “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이 주를 갈망하네. 살아계신 주여 언제 주님 앞에 나가 뵈을 수 있으리.
내 눈물이 내 양식되나니. 저들이 날마다 바웃는 소리 “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이 주를 갈망하네. 살아계신 주여, 언제 주님 앞에 나가 뵈을 수 있으리.

3. 성 삼위일체 하나님 / O Trinity, Most Blessed Light

(St. Ambrose 340 - 397 Kenneth Turner 1907-77, 곽상수번역)

이 곡의 가사는 4세기 밀라노 신부 성 암브로즈의 유명한 시이며, 터너는 케임브릿지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한 20세기 영국 작곡가로 아름다운 앤섬들로 알려져 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이어! 빛나는 태양과 같이 마음속에 비추소서
주님께 아침 찬송 드리며 주님께 저녁기도 드리리.
주님만 영원 영원히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라 성부 성자 영원하신 성부 성자 또 성령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무궁히 아멘

4.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 O How Amiable Psalm 84, 90

(R. Vaughan Williams 1872 - 1958, 곽상수번역)

본 윌리엄즈는 케임브릿지 대학과 왕립음악원에서 Parry, Stanford를 사사하고 브루흐 라벨의 제자이기도 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지휘자이며, 바흐의 교회음악을 재조명하였고, 20세기 영국음악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곡은 시편 84편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찬송 ‘예부터 도움 되시고’로 장엄하게 마친다.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주 계신 곳 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가겠네.
내 마음 기뻐 찬송드리네. 우리에게 성전주셨네. 우리 자손들 위해 성전주셨네.
주께 경배할 제단을 주셨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 영원히 주 찬송하리.
오 영광스럽고 장엄한 주시여 함께 하소서, 경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찬송 들으소서.
옛부터 도움되시고 참 소망되신 주, 이 세상 풍파 많은 중 늘 보호하시네.

창작 합창곡

5. 시므온의 노래와 송영 눅 2:29-32 (곽상수작곡)

이 곡은 곽상수교수가 유일하게 작곡한 합창곡으로 곡 앞에 1998.5.8. “사랑하는 딸 오르가니스트 곽동순 교수에게”라고 적혀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평생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로 받아서 안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아오니,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영광.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

회중찬송을 부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스피커를 통해 크게 들리는 찬양인도자나 목사님의 노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회중 찬송은 오레 오르가니스트가 인도하는 것이 관례이다. 오르가니스트가 전문적인 교회음악가라는 이유도 있으나, 그 아름답고 신비한 오르간 소리를 잘 들으며 이에 따라 찬송할 때 우리는 더욱 감격적이고 신앙적인 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훌륭한 오르간과 뛰어난 오르가니스트가 전제가 됨은 물론이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요:4:24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김정준(1914-81), 광상수 1967(1923-2013)

구약 신학자이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김정준박사의 찬송시로 1967년 대한 기독교서회에서 간행된 '개편 찬송가'의 편집위원이던 광상수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가 당시 한국인의 창작찬송가를 편입하기 위해 30여개의 선정된 찬송시 중 유일하게 예배 찬송에 맞는 시로 그 분의 신앙적 감격이 공감되어 작곡하게 되었다.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Ye Servants of God

Charles Wesley 1774(1707-1788), William Croft(1678-1727), Arr. Walter L. Pelz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오르간과 성가대가 함께 인도하는 회중 찬송부르기”는 훌륭한 오르간과 오르가니스트가 넉넉한 미국교회에서 오르간과 성가대가 잘 준비하여 함께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일이 생겨났다. 루터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이 방식을 Hymn Concertato라 부르는데, 회중이 찬송가 각 절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은 성가대만, 또 오르간의 다양한 전주, 간주와 함께 아름답게 정성껏 부르는 것이다.

이 찬송은 영국 감리교창시자 웨슬리형제의 동생이며 찬송작사자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와 웨스트민스터사원의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가로 아이작 왓츠의 찬송시 ‘예부터 도움 되시고’에 부친 곡으로도 유명한 크로프트의 대표적 찬송이다.

교회음악과 합창단

sop. / 김서연 김서희 김주는 김정현 김지원 김휘주 오희원 이해림 진유정 최리안
alto / 강유나 김경은 김윤희 김태영 안유빈 안정현 이유민 장민서 정수지
ten. / 김동호 김재원 박종호 신성은 양찬주 이지호 이현섭
bass / 김인서 김시은 김한유 문형권 박수현 서재혁 이도현 이세운 이하형 정동준

(다음의 글은 음대 하재은교수님이 기재하신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총집> 음악편 IV 2004년 발행 '공로음악가의 예술세계와 삶' "한국 오르간 및 합창음악의 선구자" 객상수 P.208-217, 글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

故 객상수(郭商洙, 1923. 4. 24-2013. 11. 17)교수의 일생

I 가족과 성장배경

계남(啓南) 객상수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아버지 객기현(郭基鉉)과 어머니 서정임(徐貞姪)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외조부는 청주 제1장로교회의 장로이셨고, 부친은 기업의 전문경영인이자 교회의 집사, 모친은 승동교회 권사, 그리고 장인(이호빈)은 감리교회 초기 목사로 원산, 진남포, 개성을 거쳐 서울 종교교회에 파견되어 30년간 봉직하셨다.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치던 객상수는 승동교회 중고등부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그의 최초 음악 세계에의 데뷔는 경기중학 3학년 때 합창단을 조직해 직접 반주하며 합창지휘를 한 것이며, 이때 슈베르트의 미사곡 중 '거룩(Sanctus)'도 연주하였다.

II 일본에서의 유학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 유학 시절 18세기 가톨릭 성지 성당의 스페인 신부와 자주 만나게 되며 가톨릭의 교리, 미사(예배)에 관해 접하게 되었고, 또한, 성실한 크리스천인 고등학교 영어 교수 가정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에 매주 참석했다. 동경제대 문학부 미학과 유학 시절 일본 작곡계의 거장 '모로이 사브로' 선생에게 음악이론을 사사했다. 이때 동경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루터파 신학자이고 주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다모리 가요' 교수의 사택에서 하숙을 하며 깊은 영향을 받고, 메지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그곳에 있던 리드 오르간으로 반주를 맡았다. 동경의 학창시절 객상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현 NHK의 전신인 일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당시 독일 출신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로젠스토크(Rosenstock)의 지휘로 Bach의 <마태 수난곡> 전곡 연주에서 합창단원으로 연주하게 된 것이다. 이 연주를 통해 기다모리 교수의 '아픔의 신학'을 몸소 경험하면서, <마태수난곡>의 깊은 종교적 감동을 가슴속 깊이 느끼며 고귀한 교회음악의 세계의 귀한 체험을 했다.

III 서울대학교 시절

귀국 후 객상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로 전과하여 철학과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서울대 기독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그는 돈암동 자택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사회학과의 안병무, 철학과의 장하구 등이 참석했으며 얼마 후에 일신회(一信會)를 조직했다. 또한, 철학과 재학 시 성종(聖鐘)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하는 일에 몰두했는데, 성종합창단은 객상수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勝洞)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을 때 조직된 기독교 학생 중심의 합창단으

로서 1947년 창설하여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바흐의 <마태수난곡> 등 수많은 합창대곡을 한국 초연했다. 광상수는 일본에서 경험한 <마태수난곡>을 우리말로 연주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당시 정동교회 오르가니스트이고 이애내(李愛內)의 제자인 이화여고의 음악교사 이영옥(李英玉, 이화여대 교수)의 오르간 반주로 한국 초연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1949년 정동교회에서 화촉을 밝히게 된다.

IV 미국 Westminster Choir College 유학, 연세대학교 음대 교회음악과 교수로 부임

광상수는 Mr. Decamp가 시작한 기독교방송국(CBS)의 초청으로 초대 음악과장을 지내던 중 미 장로교 선교부 장학금을 받고 Westminster Choir College로 유학을 가게 되며 합창지휘와 오르간으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한국 최초의 오르간 전공자가 되었다. 같은 대학에서 1년간 먼저 공부한 박태준(朴泰俊) 박사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 합창지휘 전공자였다. 이 대학에서 창설자인 Finley Williamson 박사에게 합창 지휘법을, Alexander McCurdy 박사에게 오르간을, Julius Herford 박사에게 합창이론을 사사하며, 미국 동부지역의 정통적인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와 예배음악을 접하며 깊은 감동을 체험하였다.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할 때 주임교수인 McCurdy 교수가 소형 중고 파이프오르간을 마련해 주어 그의 모교회인 승동교회에 기증하였다.

1958년 귀국 후 서울 소년 합창단(후에 혼성으로 된 새싹합창단)을 창설하여 한국 초유의 '고운소리 발성'을 시작했다. 1958년 가을 이대 대강당에서 귀국 첫 오르간 독주회를 가졌는데 바흐, 프랑크 등의 곡들을 암보로 연주했고, 부인 이영옥이 연주한 슈만 <피아노협주곡>의 오르간 반주를 맡았다.

1959년 광상수는 연세대학교의 종교음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당시 종교음악과는 신과 대학에 소속되었으며 1964년 음대로 독립하며, 광상수의 제안으로 교회음악과로 변경하여 교회음악과 초대 학과장이 되었다.

교회음악과 학과장으로 그는 '합창'을 음악대학 정식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1965년에 창설한 심포니 콰이어는 수많은 합창 대곡 연주와 음악제를 통해 음대학생들에게 합창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연세대학교 합창의 전통을 수립했다. 같은 해, 성악 전공 학생 중에서 자원한 합창단을 따로 만들어 학점과 관계없는 '콘서트 콰이어'를 시작했고 한국 최초로 미국과 일본으로 해외 순회 연주 여행을 하며 한국의 합창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1969년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세계대학합창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연세대뿐 아니라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합창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광상수는 1964년 교회음악과에서 한국 최초로 오르간 전공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열악한 시설에서 해몬드 오르간으로 교육을 시작하며 당시 불모지였던 한국의 교회용 전기오르간 제작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선구자로서의 많은 실험을 거쳐 발전시켰으며 1965년 3 건반으로 특별 제작한 전기오르간을 대강당에 봉헌했다. 그리고 1976년 한국 최초의 주문생산 파이프오르간을 연세대 루스 채플에 설치해 오르간 음악을 계몽하기 시작한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르간인 세종문화회관과 햇불선교센터 오르간 설치 자문으로도 일했고, 수많은 오

르간 후진 양성은 물론 1983년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를 창설하고 5년간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오르간 음악 발전에 기여했다.

V 교회음악 지도자로서의 생활

곽상수는 철두철미한 교회 음악인이었다. 그의 모든 음악 활동은 교회에서 시작했고 교회로 귀착된다. 1983년 그는 한국교회 음악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한 후 고문으로서 학회를 발전시켰다. 그가 한국 개편 찬송가 음악위원으로 있던 1967년 작곡한 4편의 찬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 그때 작곡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네 맘과 정성을 다 하여서」, 「고요히 머리 숙여」, 「미더워라, 주의 가정」 등은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어지는 찬송들이다.

곽상수는 음악지도자로 새문안교회에서 4년, 동신교회에서 10년간 봉사하였고, 새문안교회 음악지도자로 있던 1975년 루스 채플이 완공되고 대학교회 이계준목사의 요청으로 연세대학교교회에 음악지도자로 오게 되어 2001년까지 26년간 헌신하였다. 그는 1976년 루스채플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였고, 1980년 이계준목사와 은준관목사 두 분이 공동목회를 하며 예배순서를 개정하고, 예배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의 평생의 꿈인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음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제정한 <리마예식서>를 기준으로 연구하여 1990년에 마련한 성찬예배순서를 기본으로 연세대학교교회에서 계속 지켜오고 있다.

그는 새문안교회 지휘자로 있을 때 ‘음악지도자’(Director of Music)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 예배의 예전(Liturgy)과 파이프오르간으로 인도하는 전통적인 예배음악(Service Music)의 수준 높은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기독교 예배의 ‘거룩의 미’(The Beauty of Holiness)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때문에 이 ‘거룩의 미’가 예배음악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예배음악이 정성을 다하여 최선(最善) 최미(最美)의 것이 되도록 하는 최종 책임자는 교회음악 지도자이며 이로써 올바른 예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곽상수는 이것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매 주일 예배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1980년부터 15년 동안 해마다 성금요일 오후 3시에 드린 ‘성금요일 음악예배’의 전통을 시작하여, 베르디의 Stabat Mater, 스테이너의 십자가상의 7언, 드보아의 십자가상의 7언, 바흐의 마태수난악 등을 연주하였다. 당시 예배음악에 무관심하고 황무지같던 한국교회에 모범을 보여주고자, 그는 방학마다 성가대를 지도하고 이끌며 서울, 지방의 많은 교회를 순회하여 대학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모델로 모범예배와 수련회 세미나를 통해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였고, 교회음악의 모범을 보이는 음악예배들을 기획하였고, 예배음악 모음집 CD를 3번에 걸쳐 발간하며 예배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헨델의 메시아나 하이든의 천지창조 등 합창음악, 특히 성가합창곡(anthem) 등 수 백곡을 가사와 음악의 연관성을 중시하며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연세대학교교회 음악지도자 직을 은퇴한 이듬해인 2002년 곽상수는 올바른 예배음악이 한국교회에 정립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마지막 저서 「예배음악과 한국교회 - 나의 소원 나의

꿈」를 출판하였고 2014년 중앙아트에서 그 증보판이 출판되었으며, 대학교회에서 찬양했던 성가 가운데 150여곡의 합창성가를 편집하여 중앙아트에서 출판하였다. 곽상수의 마지막 출판물은 2005년 발행한 「예배음악 유고선집(遺稿選集)」이다. 그는 노년의 단장을 짚은 자신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찍어 제작한 카드에 “예배음악에 헌신하고자 하는 경애하는 후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의 사진과 함께 남기고자 합니다”라는 긴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시편 29편과 시편 96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즉 ‘예(禮)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라’ 하였다. 그런데 영어성경은 바로 이곳을 “In the Beauty of Holiness”라 하였다. 시편 29:2와 96:9의 성경본문은 ‘거룩한 옷을 입고’와 ‘거룩의 미(美)로’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나는 마음속 깊이 감격을 느낀다. 예배에서 예(禮)를 갖추와 거룩의 미는 같은 것이다! 전례(Liturgy)와 예배음악(Service Music)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전례에 어울리는 최고 최미의 예배음악을 우리는 정립해야 한다.

올바른 교회음악-예배음악의 정립을 소원하며 꿈꾸다가 가는
교회음악지도자 곽 상 수

곽상수교수를 추모하며 대학교회에서는 2014년 11월 23일 1주기 추모로 제60회 일요음악회에서 ‘저녁 찬양 예배 Vesper Service’를 가졌는데 이는 곽상수교수님이 1994년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지도자과정 신설을 기념하여 드렸던 저녁 찬양 예배를 재현한 음악예배였다. 2017년 여름에는 교회음악과에서 故곽상수교수를 추모하며 가족의 기부와 교수 및 동문 모금으로 ‘곽상수 메모리얼 오르간’(프랑스 Garnier 바로크오르간 II/18)을 루스채플에 설치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 <Musician K>에 그의 합창음악과 강의 지휘 영상 등이 아카이브로 보존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 최미의 음악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함이 우리 교회음악인의 본분”이라는 신념으로 음악을 시작하셨고 평생 그 길을 걸으신 곽상수 교수님. 그 분은 그 옛날 당시 한국에서는 황무지였던 오르간과 합창음악에 매료되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젊음과 모든 정열을 교회 합창에 쏟으셨으며 일생을 이 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음악인들 마음에 “한국교회음악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시편 29편 1-2절)

“Soli Deo Gloria”

곽 상 수 교 수

(1923. 4. 24 ~ 2013. 11. 17)

학 력

- 경기중학교,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 문과 졸업
- 동경대학 미학과 2년 수료(학병으로 중단, 1943)
- 서울대학교 철학과 제1회 졸업(1947)
- Westminster Choir College(파이프오르간 및 합창지휘 전공) 대학원 졸업(1957)
(2007년 3월 11일 개교기념일에 졸업 50주년에 수여되는 뛰어난 동문 공로상 Distinguished Alumni Merit Award 수상)

사 사

- 음악이론 - (일본) 모로이(諸井三郎) 교수
- 합창이론 - Dr. Jullius Herford
- 합창지휘 - Dr. J. F. Williamson
- 오 르 간 - Dr. Alexander McCurdy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교수(1959-1988), 연세대학교 명예교수(1988-2013).
- 연세대학교교회 교회음악지도자(1975-2001).

경 력

합창음악의 선구자

- 성종합창단(1947-1964) 창설지휘, 바흐『마태 수난악』, 등 수많은 합창대곡 한국초연.
- 국방부 정훈국 합창단(1951~1952) 지휘
- 서울소년합창단(1958-1964) 창설지휘, 한국 최초의 ‘고운소리’ 발성 어린이 합창.
- 연세콘서트콰이어(1965-1986) 창설지휘, 여러 차례의 국내 및 해외 연주.
- 연세심포니콰이어(1965-1993) 창설지휘, 합창대곡 연주, 수많은 음악제 출연.
-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1981-1984) 역임.

오르간음악의 개척자

- 한국 최초의 파이프오르간 전공자.
- 한국 최초의 주문 파이프오르간을 연세대 루스 채플에 설치(1977).
- 서울 세종문화회관(1978), 햇불선교센터(1992) 오르간 설치 자문.
- 오르간 음악 계몽 및 수많은 후진 양성.
-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창설 이사장(1983-1988) 역임.

교회음악의 개혁자

- 광복 후 승동교회 6년, 영락교회 4년, 전주 서문교회 1년, 향린교회 5년 성가대 지휘자.
- 새문안교회 3년, 동신교회 10년, 연세대학교교회 26년, 교회음악지도자로 2001년 6월 은퇴.
- 기독교 방송국(HLKY) 초대 음악과장(1953~1958).
- 연세대 음대 교회음악과 교수로 30년 재직, 1988년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봉직.
- 교회음악이 올바른 예배음악의 기능으로 한국교회 예배 갱신에 기여할 것을 역설.
- 한국교회음악학회 창설회장(1983) 역임.
- 저서『예배음악과 한국교회 - 나의 소원 나의 꿈』 2002년 4월 발행
- 논문「예배음악의 미학」 「한국찬송가의 실태와 그 과제」 「예배음악의 역사와 전망」 등

상 훈

- 1975년 5월 한국교회음악협회 공로표창 • 1976년 3월 대통령표창(합창부분)
- 1984년 5월 문교부장관 표창(연공상) • 1984년 5월 대한교육연합회 표창(연공상)
- 1988년 8월 국민훈장 목련장(대한민국)